



2019년도 탁구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이 하계 합숙훈련을 위해 지난 27일 무주군에 도착했다. 선수들은 오는 8월 12일까지 17일 간 무주국민체육센터 등지에서 이론교육 및 체력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탁구 국가대표 꿈나무들 '집합'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내달 12일까지 전지훈련
8일부터 12일까지 선발전

2019년도 탁구 국가대표 후보 선수(청소년)들이 하계 합숙훈련을 위해 지난 27일 무주군에 여장을 풀었다. 선수들은 오는 8월 12일까지 17일 간 무주국민체육센터 등지에서 이론교육 및 체력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박지현 감독(54, 대한탁구협회)은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무주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는데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깨끗하고 잘 완비된 시설이 마음에 든다"라며 "전국대회 등도 무주에서 개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멀지도 않고 시설이나 환경 등 모든 면에서 대회나 훈련을 하기에 최적의 여건인 만큼 무주와 자주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 선수들을 항상 반겨주시고 다양

한 지원으로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무주군과 무주군체육회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대한탁구협회에 따르면 선수들은 28일 숙소인 빨강치마리조트에서 이론교육을 시작으로 다음달 7일까지 기초체력 보강 및 전문기술 강화, 개인별 취약점 보강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부터 12일까지는 선발전을 치른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30일 무주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해 체력훈련이 한창인 선수들을 격려했다.

황 군수는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최고의 선수로 거듭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다"라며 "우리나라 탁구의 미래를 책임질 여러분을 무주가 항상 응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은 무주국민체육센터와 반딧불체육관, 예체문화관, 등나무운동장, 태권도원,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 그리고 면 단위 생활체육공원 등의 각종 시설들을 기반으로 연간 70여개 국내외 대회와 행사들을 개최해 오

고 있으며 탁구를 비롯한 태권도 종목의 동·하계 전지훈련 등이 이어 개최하며 스포츠 강군으로서의 면모를 다져나가고 있다.

무주군청 문화관광과 서종열 체육진흥 팀장은 "다양한 종목의 열기가 사계절 끊이지 않도록 대회 유치와 지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스포츠가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경제 활성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훈련장 열기에 더위도 주춤'

전국장장애인체전 전북선수단 경기력 향상 훈련 돌입

오는 10월15일부터 5일간 서울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3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북도 장애인 선수단은 7월말 현재 대표선수단 구성을 마치고 종목별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집중강화훈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전북 선수단은 론볼, 보치아, 육상, 수영, 댄스스포츠, 축구, 태권도, 사이클 등 24개 종목에 465명(선수 311명, 경기임원 및 관계자 154명)으로 구성, 각 종목별 훈련장

에서 필승의 다짐으로 더위도 주춤하듯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이번 훈련을 준비하는 도 장애인체육 종목별 경기단체는 경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강화훈련 및 전지훈련, 현지적응훈련 계획을 수립해 선수 개개인에 맞는 훈련을 하고 있다. 또한 폭염에 의한 영향으로 열사병, 각종 질병예방 및 부상 방지 등 선수들의 건강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장은성 기자

무주학생시범단 출신 정다인·이유림, 평창 태권도한마당서 1·2위

무주의 태권소년들이 또 다시 일을 냈다.

지난 26일부터 5일 동안 강원도 평창군 올림픽메달프라자에서 펼쳐진 '2019 평창세계태권도 한마당'에서 무주군 학생태권도시범단 출신인 정다인 선수(한국체육대학교 3년)와 이유림 선수(한국체육대학교 3년)가 국내 종합격파 시니어 마스터결선에서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무주학생시범단 시절부터 특출한 체력과 재능으로 전국대회에서 명성을 떨쳐왔던 두 선수는 나란히 한국체대에 진학한 후에도



강도 높은 전문 체력 훈련과 기술 연마 등을 통해 실력을 쌓아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근 강원 인제에서 열린 '2019 현대캐피탈배 전국대학배구 인제대회'에서 우석대 여자 배구부가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사진은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우석대 여자 배구부, 전국대회 '정상'

현대캐피탈배 대학배구 인제대회 우승 차지... 최우수선수로 최미주 선정

우석대학교 여자 배구부가 전국대회 정상에 올랐다. 30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최근 강원 인제에서 열린 '2019 현대캐피탈배 전국대학배구 인제대회'에서 우석대 여자 배구부가 우승컵을 들어올렸다고 전했다.

풀 리그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우석대는 전 경기를 승리하며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우석대는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금빛 스파이크를 날렸다.

첫번째 치러진 경기에서 우석대는 목과대를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이겼고, 서울여대(3대0)와 호남대(3대1), 단국대(3대1) 등을 순차적으로 만나 비교적 손쉽게 승리를 거뒀다.

대회 최우수선수로 최미주(2년)가 선정됐고, 블로킹상과 리베로상, 최우수지도자상도 우석대 배구부가 차지했다.

경기남 우석대 배구부 감독은 "선수들이 풀 풀 뭉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며 "전북 여자배구의 자존심을 살렸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 대통령기 대회 6개 부문 입상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감독 박희연)의 황성희 선수가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는 제56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가 지난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경상북도 문경시에서 개최됐다.

일반부 개인전 용장급(90kg 이하)에 출전한 황성희 선수는 결승전에서 유영도(구미시청) 선수를 단관승으로 이기고 정상에 올랐다.

황성희 선수는 지난 전국씨름선수권대회에서도 선수권부 2위와 일반부 3위에 입상하며 최근 좋은 활약을 선보이고 있다.

또 단풍미인씨름단은 개인전에서 경장급



(75kg 이하) 순회찬 선수와 소장급(80kg 이하) 오준영 선수가 2위를 차지하고 정장급(85kg 이하) 한다복 선수와 용사급(95kg 이하) 고요한 선수가 3위를 차지했다.

단체전에서는 3위에 오르며 총 6개 부문에서 입상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정읍=김대환 기자

'청소년이 아름다워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제9회

전국 청소년

마술경연대회

일시 | 2019년 8월 3일(토) 오후 2시

장소 | 중부비전센터

주 최 |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공동주관 |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전주매일신문사

JJC전북지방자치TV

후 원 | 동아보건대학마술학과, 전주시

문의전화 | 전주매일신문 업무국 063) 288-9700